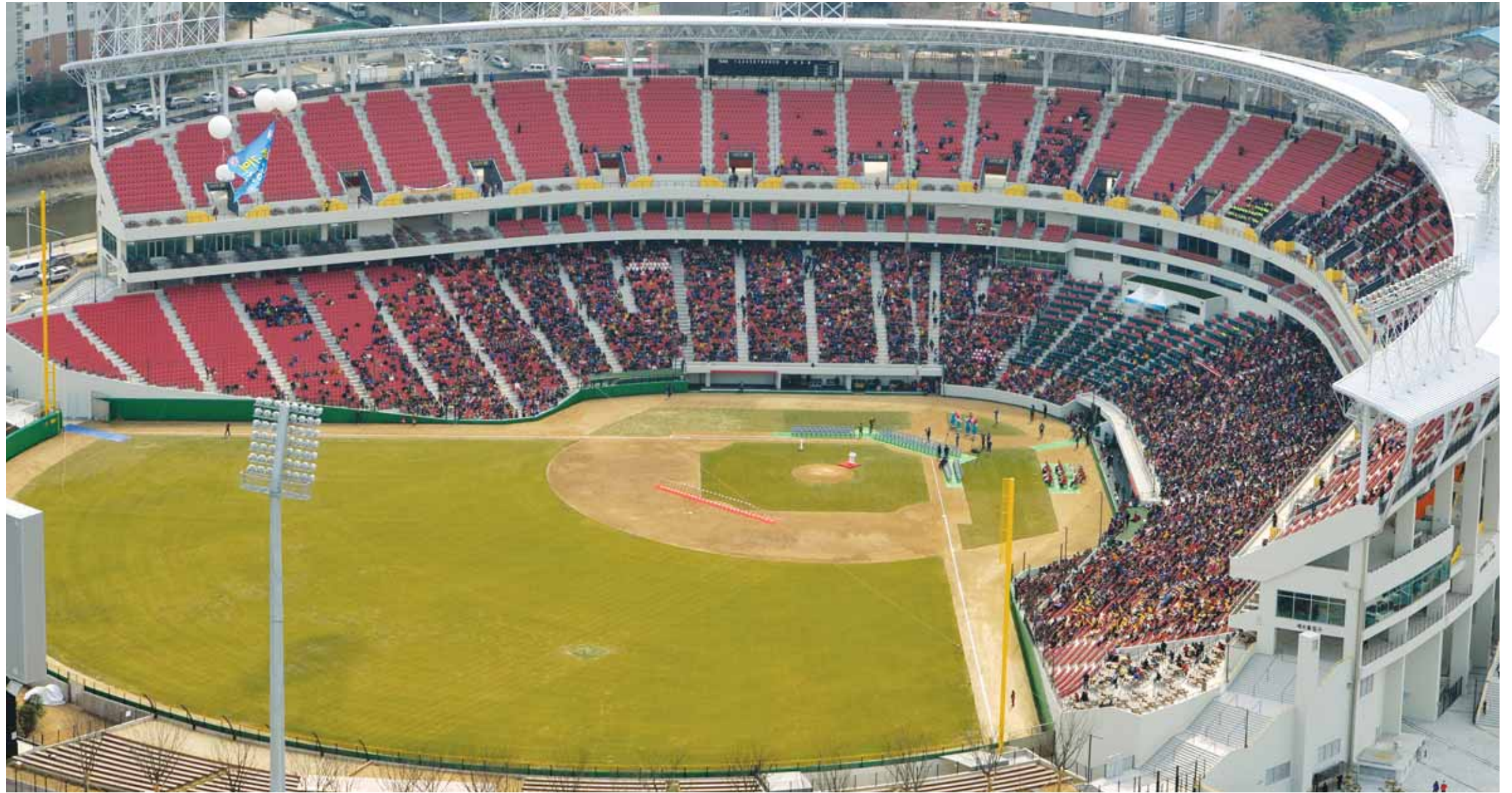


# 챔피언스필드서 KIA V11 꿈이 시작된다



양현종



### 오늘 NC와 홈 개막전...선발에 양현종

### 결그룹 사인회·'쏘울' 경품 등 행사 다채

챔피언스 필드의 역사가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1일 NC 다이노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프로야구 2014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호랑이 군단'의 새 안방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첫 경기다.

KIA의 좌완 양현종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연다. 양현종은 지난 시범경기에서 3경기에 출전, 14.1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이며 윤석민이 남겨놓은 에이스

칭호를 차지했다. 특유의 힘있는 직구에 커브를 장착하면서 좌타자와의 승부에서 한결 여유가 생겼다.

완벽한 시즌 준비로 자신감을 더한 양현종은 NC를 상대로 챔피언스필드 첫 승리투수 타이틀을 노린다.

토타라 이대형에게는 고향 팀 팬들에게 정식으로 첫 인사를 하는 자리이다. 지난 겨울 FA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대형은 시범경기에서 득점(11개)·출루율(0.514) 부문 1위를 차지하며 KIA의 토타라로 우뚝 섰다.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개막 2연전에서는 이를 연속 멀티히트 기록하는 등 0.556의 출루율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에이스와 빠르고 강해진 타선을 앞세워 홈 개막전 승리를 노리는 KIA는 챔피언스 필드 공식 첫 경기를 팬과 함께 자축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릴 예정이다.

개막전 슬로건 현수막으로 장식된 경기장 주변으로 기아자동차의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되고, '메시지 별문'을 설치해 팬들이 대형 풍선에 직접 V11 염원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오후 4시50분부터 30분간 선수들과 KIA 홍보대사 결그룹 '스피카'의 사인회가 열린다.

개막 식전 이벤트는 오후 5시30분 시작된다. 장내에서는 개막 오프닝 영상물이 상영과 함께 스피카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KIA의 역사를 활용한 그라운드 뮤지컬 '포효하라 기아타이거즈'가 공연된다. 프로야구

개막식 최초로 열리는 그라운드 뮤지컬 공연이다. 가수 인순이의 공연도 준비됐다.

공식 행사는 오후 6시 7분부터 시작된다. 원정팀 소개에 이어 올 시즌 그라운드를 질주할 호랑이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이어 KIA 이삼용 사장의 챔피언스필드 개막 선언과 함께 엠블럼이 공개된다. 선수단이 퇴장하면서 특별 제작된 사인볼을 팬들에게 던져주는 것으로 공식행사는 마무리된다.

경품도 준비됐다. 개막전을 찾는 관중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아자동차 '쏘울' 1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날 애국가 제창은 가수 인순이와 광주 지역 어린이 합창단이 한다. 시구는 챔피언스 필드 건립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 김유리씨가 한다. 2일에는 가수 거미, 3일에는 탤런트 고주원이 시구를 맡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퍼펙트 '류'

### 7이닝 무실점 호투...12이닝 무실점·방어율 0

### 샌디에이고에 3-1 패...불펜 난조 2승 불발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호주 개막전에 이어 미국 본토에서 열린 개막전에서도 호투했지만 2승 사냥은 불발됐다.

류현진은 31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14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3개씩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진은 7개나 잡았다.

경기 초반 두 차례 위기를 넘긴 뒤로 안정을 찾은 그는 2회 첫 아웃카운트부터 7회 1사까지 16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다저스의 마운드를 굳게 지켰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1-0으로 앞선 8회말 수비 때 브라이언 윌슨과 교체돼 시즌 2승째를 눈앞에 둔 듯했다.

그러나 윌슨이 등판하자마자 첫 타자인

대타 세스 스미스에게 동점 우월 홈런을 얻어맞아 류현진의 승리는 허무하게 날아갔다. 윌슨은 추가로 2실점했고 다저스는 1-3으로 역전패했다.

류현진은 이날 7이닝 무실점으로 막아 올 시즌 두 경기에서 12이닝을 던지는 동판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하며 에이스로서 확실하게 몫을 했다. 류현진은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오른쪽 엄지발톱을 다쳤지만 빠르게 회복해

2경기 연속 선발 등판했다.

류현진은 이날 88개(스트라이크 54개)의 공을 던져 한 이닝 정도는 더 던질 수 있었지만 다저스 벤치에서는 8회말 류현진 대신 윌슨을 내보냈다. 그러나 윌슨이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스미스에게 동점홈런을 얻어맞아 류현진의 2연승은 무산됐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4월 5일 홈구장인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                  |                  |
|------------------|------------------|
| 본 점 062)227-9940 | 총장점 062)227-9970 |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